

세계 3대 맥주 축제와 협력 논의 과수 병해 지원정책 마련 촉구

무주반딧불축제 대표단, 중국 칭다오국제맥주축제 조직위원회 초청 방문

글로벌(global+local) 축제를 지향하는 무주반딧불축제가 세계 3대 맥주 축제이자 아시아 최대 맥주 축제인 칭다오 국제맥주축제(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와 만났다.



글로벌(global+local) 축제를 지향하는 무주반딧불축제가 세계 3대 맥주 축제이자 아시아 최대 맥주 축제인 칭다오국제맥주축제(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와 만났다.

칭다오국제맥주축제조직위원회의 공식 초청을 받은 무주군은 21일까지 3박 4일간 서재영 무주군 부군수와 유송열 무주반딧불축제 제전위원장 등 일행 6명을 대표단 자격으로 보내 "국제 맥주 축제연맹 2024 칭다오 회의"에 참석하는 등 제34회 중국 칭다오국제맥주축제를 참관했다.

이번 방문은 두 축제 간 MOU 체결을 위한 협력 방향을 타진하는 기회이기도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표단은 20일 Cui Xi Jun(최시군) 맥주축제 총괄책임자 등 조직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문화·경제 분야 교류 촉진을 비롯한 △축제 자원 및 소품, 경험 공유, △양국 간 교차 홍보 등에 대한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칭다오국제맥주축제 성공 전략 강의를 듣고 칭다오시가 주최·칭다오국제맥주축제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축제(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서해안 골드비치에서 개최 7.19.~8.11.)를 참관했다.

서재영 무주군 부군수는 "세계 2백여 개의 맥주 브랜드가 함께 하고 6백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아와 열광하는 칭다오국제맥주축제의 세계적인 규모와 명성, 그리고 운영 노하우 등 축제가 가진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며 "무주반딧불축제가 세계로 향하는 길목에서 만난 칭다오 국제맥주축제가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송열 무주반딧불축제 제전위원장은 "축제의 성격은 다르지만 '글로벌'이라는 지향점이 같다는 점에서 벤치

마킹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며 "특히 아시아 최대, 세계 3대 축제라는 명성이 가진 개최 노하우를 우리 축제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칭다오국제맥주축제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가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1991년 8월 처음 개최한 것으로 맥주 중추국인 독일 뮌헨의 옥토버 페스트에 맞먹는 명성을 누리고 있다. 축제장에서는 세계 2백여 개 맥주 브랜드 1천 3백여 종이 판매되며 다양한 전통공연과 퍼레이드, 불꽃놀이 등을 즐길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문은영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불가항력적 병해 지원책 필요

문은영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사진)이 최근 수년간 사과 부란병과 과수화상병 등 농민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병해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지난 22일 열린 제 31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무주군, 사과 부란병 및 과수화상병 등 병해 지원책 제언' 5분 발언을 통해 무주군내 과수 재배농가가 사과 부란병과 과수화상병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농작물 재해보험 조차 불가항력적인 병해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아 농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재 자연재해성 병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관련 보험상품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부란병과 관련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과수화상병은 병

해 발생시 2년간 같은 종을 식재할 수 없고 다시 심더라도 수확하기까지 수년이 걸려 농가 경제손실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이 된다. 병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농가만이 짚어지고 가야 할 문제가 아니기에 제도적 지원 장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농업인이 불가항력적 병해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식물 방역법과 병해충 예방교육의 적절한 진행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는 농민에 대한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 홍보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확대 도입 △증장기적으로 병해저항성 품종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 △부란병으로 폐원한 사과농장의 품종갱신 사업 지원 등 여러 대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농민들이 정책을 몰라서 구제를 못 받는 사례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 우리지역 농업인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농민들이 다시 웃고 지역농업이 번창하도록 적극 검토와 지원책을 마련해달라"며 5분 발언을 마쳤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도로변 불법 현수막 정비 강화

장수군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관내 주요 국도 및 지방도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수막은 군청 건설교통과에서 신청해 지정 계사대에 게시할 수 있다. 그러나 가로수, 가로등, 도로 난간 등 지정 계사대 이외의 장소에 신고 없이 부착된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으로 교통과 보행에 방해하며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장수군은 주요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을 정비해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미관 저해 요인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 첫만남' 주제 30초 광고제 공모전 개최

진안군은 '진안, 첫만남'을 주제로 '진안 30초 광고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두근두근 진안, 첫 만남의 설렘을 담은 30초~45초 이내의 짧은 광고영상을 촬영한 순수 창작 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7월 22일~9월 22일까지 응모를 받는다.

군에 따르면 18세 이상 누구나 참가 가능하고 진안군과 연관 있는 관광 소재를 대상으로 주제에 맞는 기발한 광고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응모한 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총상금 규모는 1,250만원이며 1위 대상 1팀에게는 시상금 500만원이 주어진다. 또한 2위 최우수상 1팀 200만원, 우수상 3팀 각 100만원, 장려상 5팀 각 30만원, 특별상 5팀 각 20만원까지 총 15팀에게 상장과 함께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접수된 작품은 '2024. 진안 30초 광고제의 심사위원회'에서 9월 29일까지 심사를 진행, 최종 입상자는 10월 4일 발표할 계획이다. 10월 중 개최 예정인 시상식에는 최종 입상 대상인 15개 팀이 참석해야 하며 최종순위는 시상식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군은 심사기준을 촬영 및 편집, 감성 표현력, 주제 연관성, 참여도 등으로 세분화하여 최고 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에 따라 최종 순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진안군은 22일 군청 상황실에서 명품홍삼 집적화단지(판매시설) 조성사업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보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수립해 설계에 참고할 계획이다.

보고회는 전춘성 군수를 비롯해 관련 국·실과소장과 진안군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장, 판매 품질인증업체와 인삼·홍삼 판매업체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지 내 판매시설 조성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명품 홍삼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은 체계적인 홍보와 소비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진안홍삼 판매 촉진과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해 진안군 홍삼한방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현재 분산되어 있는 홍삼 관련 시설(홍삼한방센터, 홍삼판매장, 홍삼연구소 등)을 진안IC 근처에 모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명품홍삼 집적화단지는 유통, 공업, 관광, 공원으로 4개 단지

로 조성된다. 현재 전체 부지 기반 조성은 평탄 작업 중이며 전기, 가스, 상수도 등 기반시설 구축을 하반기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유통단지 시설 건축은 기본계획 및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까지 완료했으며, 올 하반기 주민설명회와 최종 용역 보고회를 거쳐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에 착공하여 조례 제정 및 위탁운영자, 입주자 모집공고 후 2026년에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공업, 관광, 공원단지도 활성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구상도 함께 진행 할 예정이다.

전춘성 군수는 "명품홍삼 집적화단지는 인·홍삼 제품 판매뿐만 아니라 체험·관광·문화 등을 향유할 수 있는 복합단지 개념으로 구축할 계획이며,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차별화 된 명품홍삼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시설원에분야 지원 접수

장수군은 2025년 시설원에분야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신청을 오는 8월 7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사업예정지가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포함) 자동화, 고정식 재배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축고인상, 관수관리, 환경관리, 기타 무인방제, 전동운반기 등의 자재·설비를 지원하는 '시설원에너지' △작물의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환경제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스마트팜 시설보급 및 컨설팅' △에너지절감장치를 설치 지원하는 '에너지절감시설'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중립실현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민선 8기 공약 이행률 51.7%

무주군은 민선 8기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해 수립한 '문화관광, 지역경제, 주민복지, 지역개발, 행정' 등 5개 분야 15개 정책사업 및 90개 세부 공약사업의 이행률이 51.7%라고 밝혔다.

이는 사)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 산식을 적용한 것으로 무주군에 따르면 7월 현재까지 추진 완료한 사업은 '무주관광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등 8개다. 반딧불종합스포츠타운조성 기본계획 수립'과 '코로나 19 고위험군 관리강화' 등 2건이 증가했다.

'어르신 이미용비 확대 지원 사업' 등 13개 사업은 이행 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무주군 초중고교 입학생 장학금 지원' 등 51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무주군은 지난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서재영 부군수, 그리고 각 국·실·과·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점검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2월 주민배심원이 조정·확정한 공약사업들에 대한 세부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성과 점검과 이행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



색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무주학정 및 문화콘텐츠육성' 등 조례 재개정이 필요한 4개 사업과 '원인회상영어학대' 등 예산이 부족해 목표를 미달성한 6개 사업(9억 3천 2백만원)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공약 이행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제도적 제약과 재정 압박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예산 확보를 위해 전복도나 부처를 살뜰하는 등 적극적으로 접근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공약사업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군민과의 약속"이라며 "부진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관리, 그리고 원인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정상 추진 궤도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